

주민주도형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 차이 분석: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노 병 찬*
주 덕**

국문요약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주민 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으로 추진 중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업 참여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내에서 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인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참여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참여자의 공동체 참여 경험은 네트워크와 규범 요인 내에서 조절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같은 결과를 토대로 사회적 자본의 확충을 지역의 주요 시정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 정부는 지역의 마을 만들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지역민의 네트워크, 규범 요인 강화를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 이외에 주민들의 다양한 자발적 공동체 활동의 참여 기회 마련과 더불어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주제어: 사회적 자본, 마을 만들기, 참여만족도, 자발적 공동체, 위계적 회귀분석

I. 서론

국내의 각종 통계는 사회 갈등의 심화, 성장잠재력 약화, 공동체 의식 해체 등을 반영하는 지수들을 발표하며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불안정성을 나타내고 있다. OECD 가입국가 중 사회갈등지수 5위(정영호·고숙자, 2014), 자살률 1위, 아동결핍지수 1위, 아동 '삶의 만족도' 최하위(보건복지부, 2015), 근로시간 2위(OECD, 2014), 노인 빈곤율 1위(OECD, 2015)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사회 현상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사회적 자본 확충'이다. 사회적 자본은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참여 등의 구성요소를 기반으로 해당 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 제1저자

** 교신저자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간주된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은 사람과 사람의 수평적 결합체인 시민 참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취하며, 개인·집단·지역·국가 모든 수준에 걸쳐 긍정적 기능을 제공한다(이진만, 2013). 사회적 자본의 핵심인 신뢰의 형성은 '거래비용의 절감', '사회적 신용 창출', '도덕과 규범 형성', 특히 지역사회에서는 계층완화 효과를 나타내 사회안전망을 구축함으로써(백명자, 2006) 개인과 지역, 국가 전체의 경제적·비경제적 발전의 동력으로 평가 받는다.

특히, 사회적 자본은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¹⁾의 형태로, 다양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지방자치시대의 성숙과 로컬거버넌스 체제의 확산에 따라,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은 국가보다는 지역 단위에서, 지역의 특성과 주민의 역량을 살려 '생활공동체 차원'으로 형성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견해에 힘이 실리고 있다(강대기, 2004).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은 지역주민들의 사회참여와 지역사회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 이론적 틀을 제공한다(Putnam, 1993). 집합적 수준의 조직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해당 사회의 구성원들 간의 협업과 참여로 이루어지는 지역 공동체 활동은 그 사회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인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해 분석하는 것은 중요한 정책적 의미를 갖는다. 공동체성이 강조되는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는 가치를 공유하면서 장기적인 실천을 강조하는 로컬거버넌스의 발현이기 때문이다.

이 같은 사회적 요구에 따라, 대전시는 2012년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주요 시정 목표로 정하고, 로컬거버넌스 형식의 사회적 자본 정책 전략 및 실천 방안을 수립하여 이와 관련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주민 주도형 공동체 활동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가장 핵심적인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사업으로 소규모 마을 모임²⁾이 주체가 되어 사업 내용을 자체적으로 기획하고 추진하는 사업³⁾이다. 본 사업은 전국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들과 유사한 형태와 내용을 갖고 있으나 정해진 기간 안에 물리적 산출만을 강조하고 주민들 간의 관계형성과 같은 비가시적인 가치 형성을 간과하는(곽현근, 2013) 다른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달리 개별 사업 모두가 사회적 자본 확충이라는 정책 목표의 틀 안에서 추진되는 구조적 특성을 갖는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회

1) 로컬거버넌스(local governance)는 '지역의 공동문제를 해결 조정하기 위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다양한 행위자들이 수평적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새로운 공동의사결정체'를 뜻한다.

2) 주민조직(community organization)은 '지리적으로 일정한 지역에 근거를 두고 있고 상당한 정도로 자발적이며 자발적으로 운영되는 것과 동시에 하나의 집단으로서 어느 정도는 자발적인 이타성(voluntary)을 보여주는 공식적인 비영리 집단'을 의미한다(Smith, 1999).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소규모 마을모임 역시 같은 개념을 가진 주민조직이지만, 이미 제도화되고 공식화된 주민조직인 주민자치위원회, 지역 단위 NGO 등과의 구별을 위해 '마을모임'이란 용어를 쓰기로 한다.

3) 대전의 430개 마을공동체 활동 조직 중 '좋은 마을 만들기' 모임이 373개로 86.7%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마을기업 31개, 마을어린이도서관 15개, 도시농업(텃밭공동체) 8개, 근교농촌체험마을 3개 공동체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다(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2014)

적 자본 형성의 차이를 분석함으로써 정책 효과성 검증의 목적을 갖는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의 참여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파악하고, 그러한 영향관계에 있어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의 마을 만들기 관련 연구들은 사업 참여의 결정요인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루었고, 최근 들어 본 연구와 같이 마을 만들기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다룬 연구들(유광민, 2006; 최승호·김성균, 2008; 박은지, 2012; 김우락·구자훈, 김영 외, 2013)이 등장하고 있으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주요 목적으로 추진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대상으로 그 효과성을 검증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비경제적 편익인 사회적 자본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검증함으로써 향후 지방정부의 마을 만들기 사업의 지속 여부 및 다른 주민공동체 사업의 확장과 추진에 대한 정책적 판단 근거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이론적 논의

1. 사회적 자본과 주민참여

사회적 자본은 1986년 Bourdieu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연구 용어로 사용되어, 1990년 Coleman과 1993년 Putnam의 연구를 통해 대중적으로 사용되었다. 사회적 자본은 특정 사회의 제도, 네트워크 등의 구조적 측면과 사회규범, 가치, 신뢰 등의 문화적 측면이 동시에 반영된 개념으로, 그러한 다양한 사회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해석되어 왔다. Bourdieu(1986)의 사회적 자본은 계급 경쟁 속에 있는 개인들을 분석단위로 하여 '특정 집단 구성원의 상호 지속적인 네트워크에서 비롯되는 실질적이고 잠재적인 자원의 총합'으로 경제적 자본의 확보를 목표로 한다. Coleman(1990)은 사회적 자본을 물적 자본, 인적 자본과의 대비를 통해 특정 목적을 달성하게 해주는 행위자간의 사회적 관계나 사회적 구조, 즉 생산적인 사회적 관계망으로 정의하였으며, 그 안에는 개인 간의 행위를 규율하는 규범의 총체를 포함하게 된다(박희봉, 2002).

이렇듯 사회적 자본을 사회적 네트워크 또는 사회구조 내 행위자들의 이익을 확보할 수 있는 능력으로 보는 Bourdieu와 Coleman과는 달리 Putnam은 사회적 자본을 '집단행동의 딜레마'(collective action dilemma)를 극복하기 위한 지역사회나 국가의 집합적 자원으로 정의하였다(김상준, 2004). Putnam(1993)은 사회적 자본을 '사회 구성원의 상호이익을 위한 조정과 협동을 촉진하는 요소'로 정의하였다. 즉, 시민 참여 네트워크인 수평적 결합체의 형태로, 네트워크, 규범, 사회적 신뢰 등과 같은 사회적 조직체의 특성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이와 같은 사회적 자본 특성의 발현은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 형성, 정치적 안정 등을 이끈다. Putnam의 이러한 거시적 관점은 지역민들의 사회참여와 지역 생산성 간의 관계를 분석하는데 있어 사회적 자본의 적용 가능성을 제공하였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 사회의 구성원들은 결사체 및 비공식 네트워크의 면대면 상호작용을 통해 상호간 신뢰를 쌓는다. 이는 전체 사회로 확산되어 자기 강화과정을 통해 '좋은 정부(good government)'로 선순환 되는 순기능을 제공하며(Putnam, 1993), 거래비용의 감소, 도덕과 규범 강화를 통해 원활한 공공재를 공급하게 된다(Coleman:1990). 일반적으로 논의되는 사회적 자본의 순기능은 전술한 거래비용의 감소, 즉, 건전한 상호존중의 규범과 신뢰가 보편화된 사회일수록 계약준수를 위한 감시비용, 계약파기로 인한 분쟁비용 등이 줄어 경제의 효율성이 높아진다(염중호, 2001). 또한 집단적 의사결정의 규범을 확립함으로써 호혜의 규범이라는 외부효과를 창출하며(Seragelden & Grootaert, 2000), 신뢰를 바탕으로 구성원 간 행위를 조정함으로써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Putnam, 1993).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대두와 함께 20세기 후반 국가의 한계와 시장의 실패를 경험하면서 시민 사회의 협력적 행동(joint action)을 이끌어내기 위한 '거버넌스'의 주요 행위자로 주목받는 개념이 '주민참여'이다(정규호 2007). 주민참여는 참여민주주의의 흐름과 함께 거버넌스의 필요라는 시대적 특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다. 과거 주민참여는 공권력이 부여되지 않은 지역 사회의 주민들이 정부의 정책결정에 참여하여 영향을 미치고 시행과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일련의 과정으로 정의 되었다(김남두, 2006). 이렇듯 시대적 요구와 사회적 변화에 대한 열망을 기반으로 사회 전반에 걸친 능동적 '주민참여'가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는 바,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주민참여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또한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크게 인구통계학적 변인(Koehler & Koontz, 2008)과 사회경제적 변인의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 있는데, 개인적 요인과 더불어 사회자본이나 네트워크 등의 사회 관련 변인(Booth & Richard 2001; 송경재, 2013; 전용식, 2008; 한상일, 2006) 등이 주요 영향 변인이며 결과로 분석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것은 주민 참여의 영향요인으로 해당 사회나 조직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과 주민참여로 인해 형성되는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분석한 연구들이다. 주민참여 관련 연구에서 뜻하는 '참여'는 집단상황에 대한 지적·정서적 측면에서의 관여이며, 조직의 목표를 이해하고 목표에 대한 책임을 공유할 수 있게 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조직의 성과 향상에 기여한다. 참여는 참여의 수준을 기준으로 개인적 참여와 사회적 참여로 구분되는데, 일반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유용성을 논의할 때는 주로 사회적 또는 집합적 수준의 참여를 의미한다. 이는 개인이 얻는 혜택이 집단 또는 지역사회 전체의 이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혜숙, 2006). Putnam (1993)의 시민적 참여도 개인의 자발성을 기초로 하는 사회적 참여를 의미하며, Portes(1998)의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참여 또한 사회적 참여 수준으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시민사회의 자발적 결사체 중 하나인 '마을 만들기'는 1990년대 초반에는 '지역 만들기'라는 용어로 사용되었으나 일상 환경의 문제를 다루는 주민활동의 대상이나 범위를 지칭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용어로 전환되어 사용되었다. 국내에서 '마을 만들기'는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으로 인한 사회 여건의 변화와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여, 삶의 질을 높히려는 주민의식의 변화라는 사회적 배경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 스스로 조직한

‘마을 모임’이 개별 사업을 이끄는 상향식(bottom-up) 사업방식으로, 행정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지원·협력하는 로컬거버넌스 형태를 취하는 주민자치의 실천과정으로 평가된다. 주민 참여 ‘마을 만들기’사업은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 ‘활력 있는 마을 만들기’, ‘매력 있는 마을 만들기’ 등의 다양한 이름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기 조직화(self-organization)된 주민단체나 지역 수준의 시민단체, 활동가나 지역전문가 등과 결합된 협의체 등 지역공동체의 형태로 참여하며 정부는 담당 공무원이나 이에 준하는 행정인력을 포함시켜 거버넌스 체제를 이루는 것이 일반적이다(전대욱, 2014).

현 시점의 ‘마을 만들기’는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한 실천으로, 공동체 간의 네트워크를 증진시켜 해당 사회의 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마을 만들기 사업은 개인 간 네트워크, 신뢰가 핵심요소가 되는 사회적 자본과의 높은 상관성이 전제된다. 마을 만들기는 마을 단위의 지역사회 활동 혹은 사업의 범역으로 정의되므로 마을 만들기를 통해 생성되는 사회적 자본은 지역사회자본이 된다. Gardner는 지역사회자본이 상호책임성과 주체성(mutual responsibility and ownership)을 기초로 한 개인과 지역사회 행위 패턴을 긍정적으로 성립시키는 실천이며 사회적 자본을 지역사회 내 개인이나 가족, 조직체들 간의 관계형성을 통해 협력의 토대를 마련할 수 있는 지역사회문제 해결의 선행조건으로 보았다(송기동 역, 2006).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마을만들기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자본과 주민 참여 관련 선행연구 검토

Putnam(1993)은 해당 사회의 정치·경제적 발전과 시민공동체 형성, 정치적 안정 등을 이끄는 사회적 자본이 거시적 관점에서 지역민들의 사회참여와 지역 생산성에 미치는 긍정적 기능에 주목하였다. 그의 관점에서 사회적 자본이 높은 지역과 국가는 구성원들 간 강화된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신뢰를 쌓아 전체 사회로 확산되며, 이는 거래비용의 감소로 인한 경제적 효율성 제고 및 조직 생산성 향상, 집단적 의사결정의 규범 확립을 통한 호혜의 규범 창출 등의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의 확산에 따라, 최근 사회적 자본에 대한 정책적 사업 추진뿐 아니라 다양한 학계에서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이 증가하고 있다.

사회적 자본 관련 연구들은 그 내용과 성격을 기준으로,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 측정영역 및 측정항목을 제시한 연구(소진광, 2004; 박희봉·김명환, 2000; 정연택, 2003; 김상준, 2004; 최종렬, 2003; 이재열, 2006; 김승현, 2008; 김동윤, 2009; Paxton, 1999; DeGraaf, 2003; Eorrest & Kerns, 2001; Narayan & Michael, 2001), 사회적 자본의 결정 요인을 추정하는 연구(이철화, 2009; 하성규, 2009; 광현근, 2013; 박선희, 2012; 김영미, 2014; 서종녀, 2007), 공공사업이나 공공·민간조직의 계획과 운영, 주민참여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분석한 연구(최동욱, 2009; 박은지, 2012; 서순탁, 2002; 권혁도, 2012; 이경환 외, 2007; 김우락·구자훈, 2011; 최인혜, 2009; 최승호, 2008; 노정민, 2013; 조동현, 2014; 광현근·유현숙, 2011; 김남선·김만희, 2000), 경제·사회적 문제에 대

한 처방으로서 사회적 자본을 제시하는 연구(김정원, 2007; 최은진, 2010; 권태형·박종화, 2010; 주덕, 2013) 등으로 구분된다.

본 연구가 주목하고 있는 주민참여로 인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은 ‘공공사업이나 공공·민간조직의 계획과 운영, 주민참여과정에서 사회적 자본의 형성을 분석한 연구’의 일환으로 최동욱(2009)은 경관협정에서, 박은지(2012)는 쇠퇴도시 재생 사업인 커뮤니티 가든 사업 과정에서, 서순탁(2002)은 도시계획에서 ‘주민의 참여’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임을 밝혔다. 이들은 사업의 계획과 진행과정을 통해 상호 책임과 협력, 경험학습과 성찰적 대화 등을 통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된다고 보았다. 백명자(2006)는 시민단체 참여가 사회적 자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며, 모든 시민단체에서 일관되게 사회적 자본이 높아지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최인혜(2009)는 경기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사회적 자본 수준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광현근·유현숙(2011)은 유형별 주민조직(친목, 사회봉사, 이익증진, 행정협조) 참여에 따른 인지적 사회자본(결속적, 가교적, 연계적 유형)과의 관계를 탐색적 차원에서 실증하였으며, 김우락·구자훈(2011)은 살기 좋은 마을만들기 시범사업을 대상으로 주민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주요 영향 요인임을 입증하였다.

이와 같이 주민조직은 개인들 간의 수평적 네트워크와 자발적 참여에 초점을 두고 형성된 것으로, 해당 사회의 중요한 사회적 자본 척도로 평가된다(원준연, 2000). 주민조직의 참여와 활동에 따른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규목·이준미(2004)는 자발적 자원봉사활동이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여, 대인간 신뢰와 보편적 신뢰, 제도적 신뢰 모두를 증진시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전술한 연구들은 국가나 사회 내에서 집합적 수준의 조직 참여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회적 자본의 중요변인임을 밝혔다. 따라서 사회적 자본 확충에 있어 긍정적 기능을 제공하는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구의 대상으로 설정한 본 연구에 있어 중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마을 만들기 사업의 자발적 주민 참여 활동으로 인한 기능과 효과에 대한 긍정적 평가와 함께 최근 들어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마을 만들기’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다룬 다양한 연구들(유광민, 2006; 최승호·김성균, 2008; 박은지, 2012; 김우락·구자훈, 2011; 김영 외, 2013)이 등장하고 있다. 유광민(2006)은 관광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가 사회적 자본, 특히 신뢰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였으며, 최승호·김성균(2008)은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대상으로 지역의 사회적 자본이 마을 공동체 발전에 기여하며, 의식 있는 마을 리더가 주민 간 협력과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기여했음을 밝혔다. 김우락·구자훈(2011)은 주민참여형 마을 만들기 사업의 과정 및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박은지(2012)는 쇠퇴도시를 커뮤니티 가든으로 재창출하는 과정에서 워크숍 등의 주민 참여로 인해 사회적 자본이 형성되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사회적 요구와 그에 따른 연구의 흐름에 맞춰,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대전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의 사회적 자본을 고찰함으로써 마을 만들기 참여와 사회적 자본과의 영향 관계를 밝혀보고자 한다.

3. 지역 단위의 사회적 자본 측정

제시한 연구의 목적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이 마을 만들기 참여 주민의 사회적 자본의 수준을 ‘무엇으로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라는 사회적 자본 측정에 관한 물음이다. 사회적 자본은 그 개념의 복잡성으로 인해 현재까지 합의된 측정도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사회적 자본의 측정도구는 해당 사회의 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하므로(OECD, 2001), 해당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여건과 사회적 자본과 관련되는 행동적 특성, 심리적 특성의 차이를 반영한 대리지표(proxy measures)가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을 전부 반영하는 것이 어렵고 이론적 모순이 있으므로 대부분의 사회적 자본 측정 연구들은 신뢰, 참여, 상호작용 수준 등을 중요한 측정의 구조로 제시하고 있다(OECD, 2001). 국가와 지역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탐색한 World Bank는 지역사회 단위의 네트워크나 공공서비스, 거버넌스에 대한 참여를 중요 측정 지표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정부 주도 공공서비스 및 지역의 의사결정에 대한 참여 지표 사용은 사회적 자본의 형성이 이루어지는 ‘현장’을 보다 구체화하여 반영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홍영란, 2007).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따라 다르게 구성된다. Paxton(1999)은 개인에 대한 신뢰/기관에 대한 신뢰 등 두 가지 차원으로 지표를 설정하였으며, 소진광(2004)은 사회적 자본의 요소로 신뢰, 참여, 연계망(네트워크), 제도 및 규범, 이타주의 등을, 박희봉·김명환(2000)은 규범, 신뢰, 의사소통 채널 등을 제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제시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소는 신뢰(trust), 참여(participation), 네트워크(network) 등이며, 이 밖에도 호혜성(norms of reciprocity), 관여의 강도(intensity of involvement), 투표 등 공적 참여(public engagement), 공동체와 자원봉사(community and volunteering), 비공식 교제(informal sociability) 등이 제시되었다(Putnam, 2000).

‘신뢰’는 사회적 관계를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관련 행위자들의 협동을 촉진하며, 감시와 통제 비용을 줄일 수 있는 특징을 갖는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Coleman, 1998). Fukuyama(1995)는 사회적 자본을 ‘사회에서 신뢰가 충만하여 발생하는 능력’으로 정의하여 신뢰 자체를 사회적 자본으로 간주하였다. Putnam(1995)은 신뢰를 사회생활의 마찰을 제거하고 일반적인 호혜성의 규범에 의존하는 것으로 설명함으로써 신뢰를 사회적 자본의 다른 요소인 규범과 관련지어 정의하였다. 신뢰는 집단 간에 합의된 의무가 수행되므로 다소 불확실성이 내재되어 있지만(Coleman, 1988), 특정 사회와 공동체를 유지하게 하는 동력인 것이다(Putnam, 1993). 사회적 자본으로서의 신뢰는 그 대상이 이웃, 친구, 동료와 같은 지인들로 한정되는 특수화된 신뢰(particularized trust)나 반복적인 대인관계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사적 신뢰(personalized trust)와는 다르다는 점에서, 일반화된 신뢰(generalized trust) 또는 사회적 신뢰(social trust)로 불린다(김우철, 2015). 사회적 자본에서 의미하는 신뢰는 주로 이와 같은 일반적인 신뢰를 의미(Western et al., 2005)하며, 특정 사람 간의 관계보다는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나타나는 신뢰를 의미한다. 신뢰는 행위자들의 협동 촉진 및 감시와 통제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강점을 갖는 사회적 자본의 전형적 예라고 할 수 있다.

‘네트워크’는 사회적 관계의 잠재적 축적과정을 통해 형성되는 행위자들 간의 연결 형태로 개념화 된다. 규범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네트워크는 사회적 자본을 이끌어 내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조건이 되며(Coleman, 1988), 신뢰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관여하는 방식도 ‘신뢰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통해 가능해 진다. ‘규범’은 오랜 기간 사회에서 받아들여진 행동규칙을 뜻하며, 공공재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규범은 교육을 포함하는 사회화로 처벌에 의해 유지되고 강화되며, 공동목표를 위해 협력을 강화하여, 일탈행동을 규제함으로써 사회 유지에 기여한다(Coleman, 1988). 호혜성은 도덕적 의무감에 기반 한 것으로, 제한된 호혜성(restricted reciprocity)과 일반화된 호혜성(generalized reciprocity)으로 구분되며, 교환에 대한 정확한 기대 없이 베푸는 선의가 후자에 해당한다. Putnam(1993)은 일반적 호혜성이 높은 수준의 사회적 자본을 생산하고 협력을 촉진시킨다고 보았다.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본 연구의 사회적 자본 측정에는 지역단위의 사회적 자본을 연구한 선행연구에서 사용된 ‘신뢰’, ‘규범’, ‘네트워크’, ‘호혜성’ 등의 성격을 가진 측정지표와 이에 해당하는 문항을 본 연구의 성격에 맞게 추출하여 사용한다. 각 지표별 응답자의 태도에 관한 측정 문항은 16개 문항으로 구성되며, 분석을 위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된다.

〈표 1〉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 내용

측정항목	문항 내용	출처
신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단체장과 정책결정에 관한 신뢰 - 지역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 - 중앙 공무원과 정책결정에 대한 신뢰 - 국가 사회안전망에 대한 신뢰 	한국지방행정연구원(2009) 임우석(2009) 안병일(2009) 진관훈(2011) 주덕(2013)
규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역 조례 준수 - 범법행위 신고 정도 - 지역의 갈등상황 해결의지 - 법과 질서에 대한 준법 의식 	
네트워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정도 - 이웃과의 교류 및 협력 정도 - 비상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 - 지역연고 모임 및 행사 참여 정도 	
호혜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의 사회 환원 의지 - 지역의 봉사활동 참여 - 지역의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의견 - 지역 소외계층 지원정책에 대한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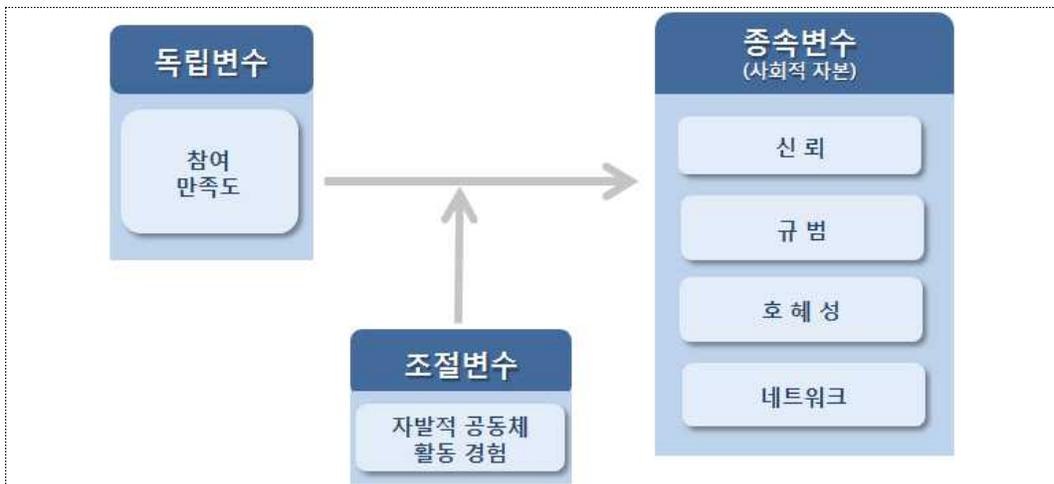
Ⅲ. 연구설계

1. 연구과제 및 분석모형

공공부문 정책사업은 그 정책의 효과성, 경제성, 형평성 등 다수의 평가기준에 근거하여 평가되나 (안상유, 2013) 마을만들기 사업과 같이 비가시적 가치의 확충에 중점을 둔 정책 사업은 대상 지역의 주민 만족도가 중요한 정책 효과성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듯 마을 만들기 관련 선행 연구들 또한 마을 만들기 사업 과정에 대한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 형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이 있음을 검증하였다(김우락·구자훈, 20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 주민 참여자의 사업 참여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 사업 참여자의 만족도 수준을 5 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한다. 이를 통해 사회적 자본 확충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적 효과성을 검증하여 그 결과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기존 연구는 자발적 결사체 활동 경험이 주민조직 참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는 다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사회조직이나 기관에 가입해 다른 사람들과 접촉을 많이 한 개인은 참여에 필요한 사회규범에 더 많이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다(Marshall, 2004). 예컨대 지역 내 네트워크의 가입이 지역공동체 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며(한상일, 2006), 정당과 같은 정치조직에서의 활동 경험 또한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Burn & Konrad, 1987). 또한 자원봉사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에 더 적극적이며(Chambré, 1987), 기부 경험 역시 주민참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Berger, 1991; Hodgkinson & Weitzman, 1992). 이와 같이 자발적 결사체 활동 경험은 사회적 유대를 형성시켜(Newton, 2001) 또 다른 주민조직 활동에 적극적인 경험을 가능케 한다고 가정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주민조직의 참여 만족도에 따른 사회적 자본의 차이에 있어 또 다른 자발적 공동체 활동 경험이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지를 분석해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1〉 연구모형



2. 연구 대상

본 연구는 연구의 목적을 위해 문헌고찰과 실증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대상지는 대전광역시로, 전국 최초로 '사회적 자본 확충'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2013년 '사회적 자본 확충 조례' 제정과 '사회적 자본 연구센터' 및 민관 협력의 중간지원 조직인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를 설립하는 등 사회적 자본 확충을 시정의 주요 목표로 정한 지역이다. 또한 타 지자체의 마을 만들기 사업과는 달리 대전의 좋은 마을 만들기는 참여자의 공동체성 형성과 같은 비가시적 가치에 중점을 두고 추진되고 있어 본 연구의 목적인 주민 주도형 공동체 사업의 추진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는데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은 주민간의 관계망 형성과 자발적 참여로 신뢰와 배려의 대전공동체 조성과 마을의제 발굴과 마을공동체 활동으로 주민자치의식 함양 및 역량강화를 정책 목표로 한다. 본 사업은 마을의제를 발굴하는 '모이자'(1단계, A형), 발굴된 의제를 사업화하는 '해보자'(2단계, B형), 모이자와 해보자 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과 사업을 유지·발전시켜 나가는 '가꾸자'(3단계, C형)단계로 나누어 추진되어 왔다. 주민공모 방식으로 선정·지원하며 참가 자격은 7인 이상의 주민모임,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이며, 재정은 2015년 기준, 모이자 100만원, 해보자 500만원, 가꾸자 800만원-2000만원 이내로 지원하게 된다.

단계별 특징으로, 1단계인 모이자 주민 지원 사업은(2013) 마을이나 주민간 관계망 형성을 지향하는 소규모 모임 마을의제 발굴을 위한 활동 및 소규모사업 등을 의미하며, 마을 조사나 학습 등의 활동들이 포함된다. 2단계 사업인 해보자 주민 지원 사업(2014)은 1단계 사업에서 확대된 형태로 동 단위 마을 거버넌스 구축사업이나 2개 이상의 마을 공동체 협업 사업 등을 뜻하게 되며 쓰레기문제의 해결방안 제시, 안전마을 만들기, 텃밭 가꾸기, 돌봄교실 등이 포함된다. 마지막 단계인 가꾸자 주민지원사업(2015)은 1~2단계를 통해 성장한 마을활동 및 마을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목표로 민과 관, 주민조직과 민간단체, 공동체와 공동체간의 강화를 사업의 내용을 포함한다(대전광역시, 2014). 그러나 이러한 모임들이 참여기간과 비례하여 단계별 성장을 이루는 것이 아니며, 사업 참여 시작 단계에서 모두 1단계인 모이자 주민지원 사업으로 출발하는 것이 아닌, 참여 전 단계에서 조직된 각 공동체의 특성에 기인하여 단계별로 참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는 편의표본추출에 의해 대전시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 공동체의 구성원을 조사 대상자를 선정하였다. 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참여 공동체를 단계별로 구분하여 조사를 진행하지는 못하였으나 참여자의 소속 공동체에서의 활동 기간을 기재하여 조사자의 일반적 특성에 반영하였다. 조사는 2016년 2월 1일부터 약 3주간 마을 만들기 사업설명회와 주민 모임에서 조사대상자와의 면대면 설문조사를 통해 진행되었다. 설문문의 주요 조사 내용은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 횟수, 사회적 자본, 인구 통계적 특성 등이다. 수집된 자료 중 결측

치를 포함하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한 총 185부가 최종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모형분석에는 SPSS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분석, 요인분석, 위계적 회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IV. 분석 결과

1.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대전시의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주민조직의 대전시 시민을 대상으로, 설계된 설문지를 통해 면대면 조사를 시행하였다. 최종 분석에 사용된 총 185개 표본의 빈도분석 결과, 거주지는 중구가 75명(40.5%)로 가장 많은 수를 나타냈으며, 11-20년 이상의 거주기간의 표본이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학력별로는 대학 재학 및 졸업이 117명(63.2%)으로 과반을 넘게 차지하였으며, 소득별로는 300-400만원 대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특히, 두드러지게 40대, 기혼, 여성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마을 단위 소규모로 운영되는 주민조직의 특성상, 모임에서 추진하고 일들이 생활 밀착형 주제라는 점에서 낮 시간을 활용할 수 있는 기혼 여성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표본의 인구통계학 특성

구분		빈도	%	구분		빈도	%
거주 지역	동구	38	20.5	거주 기간	5년 미만	35	18.9
	서구	43	23.2		6~10년	56	30.3
	중구	75	40.5		11~20년	66	35.7
	유성구	15	8.1		20년 이상	28	15.1
	대덕구	14	7.6				
결혼	미혼	34	18.4	연령	20대	15	8.1
	기혼	151	81.6		30대	44	23.8
성별	남성	27	17.8		40대	96	51.9
	여성	152	82.2		50대	30	16.2
학력	고졸	48	25.9	가계 소득	100만원 미만	19	10.3
	대학 재학 및 졸업	117	63.2		100~200만원 미만	16	8.6
	대학원 재학 및 졸업	20	10.8		200~300만원 미만	42	22.7
직업	전문직	26	14.1		300~400만원 미만	50	27.0
	사무직	17	9.2		400~500만원 미만	40	21.6
	생산·기술직	9	4.9		500~600만원 미만	12	6.5
	서비스직	22	11.9		600~700만원 미만	2	1.1
	공무원·교직원	6	6.5		700~800만원 미만	3	1.6
	자영업	21	11.4		800만원 이상	1	0.5
	학생	5	2.7				
	퇴직무직	15	8.1				
	주부	58	31.4				
						합계	185

2. 사회적 자본의 신뢰도 및 타당성 분석

본 연구는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요인별 영향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16개의 사회적 자본 측정 문항에 대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성분 분석과 요인 적재량의 단순화를 위해 베리맥스 회전을 통해 요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한 Cronbach α 값을 확인하였다. 분석결과, 낮은 요인적재량을 나타낸 문항 2개를 제외한 14개의 항목이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등 4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분석 결과, 모든 요인에서 Cronbach α 값이 0.6 이상으로 나타남에 따라 높은 내적 일관성을 보였으며, 분산설명력은 60.96%로 적합한 공통요인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와 규범 요인은 각각 4개 문항으로, 신뢰와 호혜성 요인은 각각 3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표 3〉 사회적 자본의 탐색적 요인분석 분석결과

요인명	요인문항	요인 적재량	신뢰도
네트워크 (2.69a 19.25%b)	이웃과의 상호협력 및 교류 정도	.851	.817
	비상시 도움을 청할 수 있는 이웃의 범위	.816	
	지역연고 모임 및 행사 등에 참석 정도	.769	
	가족 및 친척과의 교류 정도	.726	
규범 (2.49, 17.8%)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준수	.839	.787
	사회적 갈등에 대한 주도적 해결 의지	.787	
	우리나라의 법과 질서에 대한 준수	.745	
신뢰 (1.93, 13.8%)	범법행위 신고 정도	.713	.676
	대전시의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과 그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신뢰	.822	
	대전시의 범죄 안전망에 대한 신뢰	.806	
호혜성 (1.62, 10.1%)	중앙정부 자치단체장 및 공무원과 그들의 정책과정에 대한 신뢰	.630	.639
	사후 재산 환원이나 장기기증 의지	.743	
	우리지역의 기피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 정도	.676	
	소외계층을 위한 정책 및 사업에 대한 찬성 정도	.581	

추출방법:Principal Component Analysis, 회전방법:Varimax

KMO(Kaiser-Meyer-Olkin)=0.727, 총분산: 60.96%, a: eigen-value, b: 분산

Barlett's Test of Sphericity=741.849(p<0.000).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추출된 사회적 자본의 요인별 기술 통계 결과, 규범 요인의 평균값이 3.99로 가장 높았으며, 호혜성(3.52), 네트워크(3.99), 신뢰(3.12)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마을 만들기 주민 참여자들의 사회적 자본은 사회적 갈등 해결과 같은 그들에게 닥친 문제 상황을 해결하고자 하는 집단적 특성이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표 4〉 사회적 자본 요인의 기술통계 결과

사회적 자본 요인	네트워크	규범	신뢰	호혜성
평균(M)	3.52	3.99	3.12	3.52
표준편차	0.67	0.59	0.58	0.55

3.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분석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기능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지역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한 정책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의 영향력을 해당 주민의 개인적 특성인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 마을만들기 주민참여자의 사업 참여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 내에서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 분석을 위해 위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oderated regression analyses)을 실시하였다.

위계적 회귀분석은 조절변수가 추가된 모형의 설명력이 독립변수로만 있는 모형의 설명력보다 유의하게 증가되면 이를 통해 조절효과의 여부를 검증하게 된다. 즉, 1단계 모형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회귀분석의 결과를 평가한 후, 다음 단계 모형에서 차례대로 독립변수 및 조절변수를 추가하여 F변화량의 유의수준을 통해 조절효과 여부를 결정한다. 본 연구는 총 4개의 사회적 자본 요인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4번의 위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는 ‘마을 만들기 참여 만족도’이며, 조절변수는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 횟수’로, 각 종속변수별 독립변수와 조절변수는 동일하다.

〈표 5〉 참여만족도와 사회적 자본관계에서 공동체 참여경험의 조절효과 분석

요인	모형	R	R ²	수정된 R ²	표준 오차	통계량 변화량				
						R ² 변화량	F 변화량	자유도1	자유도2	유의확률
네트워크	1	.162 ^a	.026	.021	.989	.026	4.952	1	183	.027
	2	.220 ^b	.048	.038	.980	.022	4.197	1	182	.042
	3	.341 ^c	.116	.101	.948	.068	13.856	1	181	.000
규범	1	.364 ^a	.132	.128	.934	.132	27.923	1	183	.000
	2	.377 ^b	.142	.133	.931	.010	2.090	1	182	.150
	3	.393 ^c	.154	.140	.927	.012	2.568	1	181	.111
신뢰	1	.034 ^a	.001	-.004	1.002	.001	.212	1	183	.646
	2	.036 ^b	.001	-.010	1.005	.000	.025	1	182	.875
	3	.037 ^c	.001	-.051	1.007	.000	.010	1	181	.919
호혜성	1	.201 ^a	.041	.035	.982	.041	7.742	1	183	.006
	2	.201 ^b	.041	.030	.985	.000	.000	1	182	.991
	3	.276 ^c	.076	.061	.968	.036	7.010	1	181	.009

a. 예측값: (상수), 참여만족도,

b. 예측값: (상수), 참여만족도, 타 공동체 참여 횟수

c. 예측값: (상수), 참여만족도, 타 공동체 참여 횟수, 참여만족도*타 공동체 참여 횟수

분석 결과, F값의 변화량에 따라 모형1에서 마을만들기 참여만족도는 네트워크 요인과 규범요인, 호혜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공동체 참여경험은 네트워크 요인과 호혜성 요인에서 조절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동체 참여경험의 공동체 조절효과를 나타낸 요인인 네트워크에서 R^2 의 값은 모형1에서 2.6%, 모형2에서 4.8%, 모형3에서 11.6%로 점점 더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호혜성 요인에서는 모형 3에서 7.6%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V. 결론

최근 우리사회의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발전, 공동체성 형성을 위한 '집단적 자산'으로 평가받고 있는 사회적 자본의 중요성에 대한 각 지자체의 인식에 따라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주민 참여형 마을만들기 사업의 정책 효과성을 확인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가진다. 이를 위해 본 연구가 주목하는 것은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자의 사업에 대한 만족도와 그들의 개인적 특성인 자발적 공동체의 참여 경험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기존 연구들은 주민 참여형 사업 과정의 만족도와 다양한 형태의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는 대전시의 사회적 자본 확충 사업으로 추진 중인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의 주민 참여자를 대상으로 그들의 사업 참여 만족도와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를 분석하고 그 관계 내에서 공동체 참여 경험의 조절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마을 만들기 사업의 참여 만족도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력은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 요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주민주도형 공동체 활동인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 주민의 사업 참여 만족도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각 지자체는 지역의 총체적 발전에 기여하는 사회적 자본의 구성요인인 네트워크, 규범, 호혜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확장과 주민 참여를 권장할 수 있는 물리적 시설 및 제도적 장치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또한 참여만족도와 사회적 자본의 관계에서 참여자의 자발적 공동체 참여 경험은 네트워크와 규범 내에서 조절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지방정부는 지역의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더 다양한 계층과 많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지역 공동체 조직 기반을 제공하고 관련 제도와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지방정부가 다양한 주민 참여형 공동체 활동을 위해 사회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사회적 기반은 예컨대 지역민의 재산권 보호, 치안유지 등 각종 공공재의 효과적 공급, 시민교육의 활성화, 정보 공개 등과 특히 공동체 의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시민교육 등이 될 것이다.

마을 만들기는 주민들과의 공동학습과 체험, 주민들 간의 소통과 관계성 회복, 공통 관심사 형성 등의 과정으로, 주민참여를 도모하고 조정해 나가는 과정이 곧 마을 만들기이기 때문에 마을 만들기의 본질적인 속성은 결국 주민의 자발적 참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주민참여 활성화를 주

제로 한 김경화 외(2015)의 연구는 마을 만들기 주민의 참여 활성화에는 더 다양한 영향 요인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주민 공동체의 리더와 리더십, 공동체 인식, 소통과 관계성, 공동 자산 보유, 민주적 조직 운영과 소통 등의 공동체 내부 역량과 지원조직 및 행정체계 구축을 기반으로 내부자원, 내부동기, 직접적 외부 동기, 간접적 외부동기, 외부자원, 성과측정, 학습기회 등의 공동체 외부요인들이 그것이다. 즉,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해 주민들 간의 정주의식 향상, 공동체 소통과 관계성 강화, 민주적 소통 역량 향상, 공동자산 확충, 민주적 조직 운영 역량 강화 등을 위한 주민활동이 병행되어야 하며, 정책의 철학 정립, 행정 시스템·제도화 구축이 기반 되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사회적 자본 확충을 위해 수단적 성격으로서 마을만들기 사업 참여에 주목하여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사업 참여 만족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으나 향후 연구에서는 마을만들기 사업의 참여요인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영향력을 다양한 관점과 측정지표를 통해 분석함은 물론 마을만들기 사업이 전국적으로 추진되는 정책 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조사 대상지와 큰 규모의 표본을 선정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확보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화·백종인·손철희·반영운. (2015). 마을 만들기의 주민참여 활성화 요인 도출. *도시행정학보*, 28(2), 267-285.
- 곽현근. (2013).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의 주거관련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237-267.
- 곽현근·유현숙. (2011). 지역사회 주민조직 참여가 인지적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주민조직 유형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5(2): 61-91.
- 권태형·박종화. (2010). 사회적 자본이 도시경쟁력에 미치는 영향분석. 「*지방정부연구*」, 14(3), 97-116.
- 김상준. (2004). 부르디외, 콜만, 퍼트남의 사회적 자본 개념 비판. 「*한국사회학*」38(6): 63-95.
- 김영미. (2014). 「주거관련 특성이 지역사회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 영·정규식·천성봉. (2013). 도심재생사업을 위한 로컬거버넌스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한국지역개발학회지*」, 25(2): 43-70.
- 김우락·구자훈. (2011). 주거지 정비사업에서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국토계획*」, 46(4): 105-119.
- 대전광역시 사회적 자본 지원센터. (2014). 「좋은 마을 만들기 사업 백서」.
- 박선희. (2012). 「근린효과가 사회적 자본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박은지. (2012). 「커뮤니티 가든 주민참여 계획의 사회적 자본 형성효과 연구」.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봉. (2002). 사회자본이론의 논점과 연구경향. 「정부학연구」. 8(1): 5-44.
- 박희봉·김명환. (2000). 우리나라 지역사회의 사회자본 증진에 관한 연구: 사회자본 측정과 분석을 위한 시도. 「한국정치학회보」. 34(4): 219-237.
- 백명자. (2006). 「사회자본의 영향요인 분석- 시민단체(NGO) 참여를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보건복지부. (2015). 「제1차 아동정책 기본계획('15~'19)」.
- 서순탁. (2002). 「사회적 자본증진을 위한 도시 계획의 역할과 과제: 접근방법과 정책적 합의」. 국토연구. 33: 73-87.
- 서종녀. (2007). 「공동주택단지 유형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련성」.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서혜숙. (2006). 「사회자본과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수혜자의 만족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소진광. (2004). 사회적 자본의 측정지표에 관한 연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16(1): 89-118.
- 안병일. (2009). 「청소년단체 참여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진만. (2013). 「조직 내 사회자본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재열. (2006). 지역사회 공동체와 사회적 자본. 「지역사회학」. 8(1): 33-67.
- 이철화. (2009). 「동네사회자본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도시재개발유형 및 주거관련요인을 중심으로」. 대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우석. (2009). 「사회적 자본과 노인 생활만족도의 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유광민. (2006). 농촌관광마을에서 사회자본과 리더십 사례연구. 「관광연구논총」. 18: 177-199.
- 염종호. (2001). 「공공조직의 사회자본과 조직효과성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진관훈. (2011). 「사회적 자본이 복지거버넌스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정영호·고숙자. (2014). 「사회갈등지수 국제비교 및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주 덕. (2013). 사회적 자본이 공익적 관광개발사업의 가치평가에 미치는 영향. 「한국관광학회」. 14(4): 183-209.
- 최동욱. (2011). 「경관협정으로 함양된 사회적 자본 연구-사회적 자본 평가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최승호·김성균. (2008). 「지역 마을 공동체 만들기를 통한 자립 방안 모색」. 충북발전연구원. 연구보고서 1-51.
- 최종렬. (2004). 신뢰와 호혜성의 통합의 관점에서 바라본 사회적 자본: 사회자본 개념의 이념형적 구성. 「한국사회학」. 6: 97-132
- 최인혜. (2009). 「지역공동체 형성을 위한 「마을 만들기」가 사회자본에 미치는 영향」. 연세대학교 대

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성규. (2009). 주택점유형태에 따른 사회적 자본과 주거공동체 활성화, 『주택연구』, 17(4): 77-94.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12).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 자본 측정 및 증진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 제462권.
- 황영호·박종관 (2004). 충청·호남지역의 사회자본의 실태와 형성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14(4): 183-209.
- 홍영란. (2007). 「사회적 자본 지표 개발 및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Bourdieu, Pierre. (1986). The Forms of Capital. In J. G. Richardson(ed), Handbook of Theory and Research for the Sociology of Education. Westport: Greenwood Press, 241-258.
- Coleman, J. S. (1988). Social capital in the creation of human capital.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S95-S120.
- _____. (1990). Foundations of Social Theory,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DeGraaf, Don. (2003). Social Capital. Parks and Recreation. 12-38.
-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the Creation of Prosperity, New York: Free Press.
- Narayan, D., & Cassidy, M. F. (2001). A Dimensional Approach to Measuring Social Capital: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a Social Capital Inventory. Current Sociology. 49(2): 59-102.
- OECD. (2001) The Well-being of Nations.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Center for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Paris.
- _____. (2014). Employment Outlook.
- _____. (2015). Why less inequality benefits all.
- Paxton, P. (1999). Is social Capital Declining in the United States? A Multiple Indicator Assessment.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1): 88-127.
- Portes, A. (1998). Social Capital: Its Origins and Applications in Modern Sociology. Annual Review of Sociology. 24: 1-24.
- Putnam, Robert D. (1993). The prosperous community: Social Capital and Public Life. The American Prospect, 13(Spring), 4(13):35-42.
- _____. (1998). Bowling alone: America's Declining Social Capital. Journal of Democracy. 6(1): 65-78.
- _____.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New York: Simon and Schuster.
- Serageldin, Ismail & Christiaann Grootaert. (2000). Defining Social Capital: An Integrating

View. In Partha Dasgupta & Ismail Seragedin,(eds.) Social Capital: A Multifaceted Perspective, 40-58. Washington D.C.: The World Bank.

노병찬(盧炳燦): 공무원연금공단 상임감사, 대전광역시 행정부시장 역임(bcroh@geps.or.kr).

주 덕(朱 德): 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djoo79@naver.com).

〈논문접수일: 2016. 4. 1 / 심사개시일: 2016. 4. 5 / 심사완료일: 2016. 5. 8〉

Abstract

The Difference Analysis of Social Capital According to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Community Building Business Driven by Residents: Based on The Control Effects Of Voluntary Community Experiences

Roh, Byeong Chan

Ju, Deok

In this study, The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of social capital and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of 'a good community building business' driven by residents as a social capital expansion projects in Daejeon City government was done. And within that relationship the control effects of the voluntary community experiences as a personal characteristics of participants are planned to identify. As the analytic results, the control effects of the voluntary community experiences within the relationship of a social capital and the participation satisfaction have an effects on a network factor, a norms factor of residents. Base on those results of this study, the local governments which have a plan to expand the social capital in their region, have to make opportunities for residents to participate in various community activities, support plans for their activities.

Key Words: Social Capital, Community Building Business, Participant Satisfaction, Voluntary Community